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상황조건에 따른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에 대한 연구

이 영 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상황조건에 따라 의도지각, 귀인(통제가능성과 책임성) 및 분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청소년 집단(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공격성 측정을 위한 교사평가와 또래지명을 사용하여 공격적 집단(128명), 비공격적 집단(130명)으로 분류하였다. 폭력비행 집단(68명)은 폭력행위, 상해 등 대인적대적 비행을 범한 청소년들 중에서 선별하였다. 5-7명의 피험자로 구성된 소집단에 우호적 상황, 무연적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 및 적대적 상황으로 되어 있는 16개의 상황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를 측정하였다.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이들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의도지각, 책임성과 통제성의 귀인 및 분노는 공격행동의 유발에 관계되는 변인이다. 둘째, 이들 변인들은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폭력비행집단은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적대적 상황과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들 상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고, 분노를 더 많이 유발하며, 상황의 의도가 통제가능하고 그 책임이나 잘못이 상대에게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I.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학생 범죄 중 폭력범죄가 3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공격행동으로 인한 비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백서, 1999: 278-285). 공격행동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공격행동은 아동기에 이미 형성된 공격적 특성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oeber & Hay, 1997). 또한 청소년 초기의 공격행동은 또래 거부, 비행과 성인 범죄, 정신병리 등의 부정적 결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양계민과 정현희, 1999;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부장

사회정보처리 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격행동의 유발은 단서나 의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단계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공격적 아동은 비공격적 아동에 비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또래의 의도를 보다 적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 편향(hostile attributional bias)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금주 외, 1991; Dodge 외, 1990). 또한 크릭과 다지(Crick, N. R. & Dodge, K. A, 1994)는 사회정보처리 모형의 각 정보처리 단계에 정서가 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정서가 각각의 정보처리 단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서가 공격행동 유발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인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귀인이란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으로, 흔히 공격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tancourt & Blair, 1992). 특히 공격행동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귀인 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와이너(Weiner, B., 1991; 1993)는 공격행동은 부정적 결과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 분노가 야기되고, 분노가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경로(책임성→분노→공격행동)를 제시하였다. 메탄코트와 블레이어(1992)는 폭력행동에 있어서의 귀인-정서-행동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갈등상황에 대한 귀인과정에서 정서를 야기하고, 이 정서가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경로(귀인→귀인과정→정서→폭력행동)를 통해 폭력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귀인과정의 구성요소를 통제가능성과 의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레함 외(Graham, S. 외, 1992), 임승렬(1996)은 의도지각이 분노를 야기하고, 이 분노가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경로(의도지각 및 귀인→분노→공격행동)를 분석하여, 모두 귀인과 분노 및 공격행동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귀인과정과 귀인양식을 비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격적, 비공격적 아동과 청소년은 실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공격성에 대한 지각과 책임성 귀인(Willis & Foster, 1990) 및 귀인 과정(Graham & Hudley, 1994)이 달랐고, 공격·비공격적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애매모호한 상황과 비의도적 조건에서 귀인 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dge 외, 1990; Fondacaro & Heller, 1990). 그리고 비행집단은 중립적인 상황에서 협상하는 것과 자신을 화나게 하는 도발적인 상황에서 협상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Leadbeater 외, 1989). 크릭과 다지(1994)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적 아동이 비공격적 아동에 비해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적대적 상황

에서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제시된 상황에 따라 공격반응 행동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공격·비공격적 아동 및 청소년의 귀인과정과 귀인양식은 실험 조건과 제시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공격성과 비행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에라 외(Guerra, N. G. 외, 1990)는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이 자신의 사회적 실패를 통제가능한 원인에 귀인하는 경향과 상관되고, 신체적 공격과 분노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간의 관계는 공격적 집단과 비공격적 집단 혹은 비행의 유형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는 공격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도지각, 귀인 및 정서적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2. 연구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환경적 요소 또한 청소년기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중·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공격행동은 청소년 자신을 위협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비행과 범죄 행위로 확대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관련되는 변인들이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공격행동 분야의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로 의도지각, 통제가능성과 책임성의 귀인 및 분노를 선정하고, 이들 변인들이 공격행동의 정도와 비행 유형 즉 공격적 집단과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과 여러 가지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집단과 비공격적 집단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비행집단이 우호적 상황, 우연적 상황, 에메모호한 상황 및 적대적 상황에 따라 의도지각, 귀인(통제가능성과 책임성) 및 분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격적 집단, 공격적 집단, 폭력비행집단간에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

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우호적 상황, 우연적 상황, 적대적 상황 및 애매모호한 상황조건에 따라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의도지각은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통제가능성은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책임성은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분노는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정보처리 모형

1980년대 초 공격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접근이 대두되어, 하우스만(Huesmann, L. R.)은 관찰학습에, 다지(Dodge, N. R.)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정보처리 모형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공격적 행동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Dodge & Crick, 1990). 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지각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어떻게 귀인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의 행동반응의 생성과 그 행동의 실행이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친사회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지(1986)는 개인의 공격행동을 중재하는 인지과정과 그 내용을 밝히는 사회정보처리 모형을 발전시켰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단계들은 크게 단서의 부호화와 해석단계, 반응 결정단계, 반응 실행 및 평가 단계로 나누어진다(Crick & Dodge, 1994). 사회적 단서의 부호화 단계에서는 사회적 상황이나 자극이 가지는 의도나 단서에 선별적으로 주의 집중하여 부호화가 이루어진다. 해석 단계에서는 부호화 된 단서들을 장기기억에 정신적으로 표상하고, 그 단서에 대해 의미 있는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는 상대방의 의도 해석과 자극의 원인에 대한 귀인과과정 등이 포함된다(Dodge, 1993). 반응결정 단계에서는 장기기억에서 하나 이상의 가능한 행동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이들 행동반응들은

저장된 기억의 맨 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 반응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선택된 행동반응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행동반응들이 수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증거는 개인마다 다르나 실행을 위한 개인의 효율성, 수단적 결과나 결과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Dodge & Crick, 1990).

사회정보처리의 각 단계와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Crick & Dodge, 1994), 공격적 아동이 비공격적 아동보다,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 보다 사회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아동은 비공격적 아동에 비해 사회적 단서의 부호화와 해석 단계에서 또래의 의도에 대한 단서를 해석하는데 결함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에 대해 적대적 귀인편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금주, 1992; Crick & Dodge, 1996; Lochman & Dodge, 199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개인이 도발적 상황에서 자극이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공격행동이 사회적 단서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귀인하느냐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적 아동이나 청소년이 또래의 의도를 귀인하는데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적대적 귀인편향인 것으로 나타났다(Asher & Coie, 1990). 적대적 귀인편향(hostile attributional biases)은 공격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사회화된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비행청소년, 폭력비행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에서도 나타났다(안지영, 1992; 장화정, 1990; Waldman, 1996). 이러한 적대적 귀인편향이 공격행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Dodge 외, 1997; Dodge 외, 1990).

다지(1980)의 연구에 의하면 적대적 조건, 우호적 조건 및 애매모호한 조건에서 모든 피험자 아동들은 우호적 조건 보다 적대적 조건에서 보다 더 공격적 반응을 나타내었고, 적대적 조건에서는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 모두 또래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귀인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우호적 조건에서는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 모두 공격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매모호한 조건에서 비공격적 아동은 또래의 의도를 우호적 혹은 우연적으로 해석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억제한 반면, 공격적 아동은 애매모호한 조건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50% 이상이었고, 더 자주 공격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공격적 아동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부정적 결과가 자신에게 나타나 경우에 자신의 반응이 더 공격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장화정, 1990; 안지영, 1992; Dodge 외, 1982).

센실리오 외(Sancilio, F. M. 외, 1989)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적인 아동은 적

대적인 귀인에 의해 공격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우호적으로 귀인했을 때도 공격적인 반응을 예전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대가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라도, 공격적 행동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공격행동 및 비행의 유형과 제시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귀인과 정서의 관계

귀인이론은 관찰된 행동의 원인을 기술하는 일반적 법칙을 규명함으로써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체계로 자신 및 타인의 행동을 유발시킨 원인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 동기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다(정종진, 1992). 귀인이론의 기저가 되는 핵심적 구인(構因)은 귀인(attribution)과 인과적 차원(causal dimension)이다. 귀인과 인과적 차원은 원인에 깔려있는 속성 또는 공통분모를 뜻한다. 따라서 이것들은 각 원인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원인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정종진, 1992; Weiner, 1986). 인과적 귀인은 소재, 안정성 그리고 통제가능성의 세 차원으로 분류된다. 이들 차원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특성 및 인과적 귀인의 특징을 반영하고, 독특한 심리·행동적 결과와 관련된다. 인과적 귀인의 세 차원 중 통제가능성 차원은 찾아진 원인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느냐로 특징 지워진다.

와이너(1985)는 자부심(pride), 분노(anger), 동정심(pity), 죄의식과 부끄러움(guilt and shame), 만족감(gratitude), 무력감(hopelessness)의 7가지 정서가 귀인 및 인과적 차원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들 정서 중 특히 분노, 동정심, 죄의식 및 만족감은 종(種)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서로 통제가능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와이너 외(Weiner, B. 외, 1982)는 동정심, 죄책감 및 분노에 대한 귀인을 분석한 결과 분노와 죄책감이 통제가능한 원인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것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분노는 원인의 대상이 제 3자이고 죄책감은 자기에 대해 갖게 되는 정서로서, 원인의 소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노는 원인이 통제가능하고, 그 원인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는 것으로 귀인 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사건의 원인이 통제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통제가능성과 그 원인의 소재 즉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의 책임성에 따라 정서가 결정되고, 특히 분노는 통제가능성과 책임성과 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 유발의 주요한 요소로 해석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정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사건을 다루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Scherer, 1997). 화이트셀과 하터(Whitesell, N. R., & Harter, S., 1996)는 초기 청소년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해석 및 예상되는 반응이 또래지위, 성, 연령 및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분노는 초기 청소년들이 도발적인 또래관계에서 처음 경험되는 정서이고, 분노는 친한 사이가 아닐 때 공격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노가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이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일반 청소년은 대구 시내 중학교 14개 학교 1학년 15개 학급, 2학년 13개 학급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 평가와 또래지명을 실시한 학생 수는 1학년 485명, 2학년 366명으로 총 85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13.7세 이었다. 비행 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재소되어 있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폭력 행위 관련 비행을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68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비행 형태는 폭력 행위, 상해 등이었고 비행 회수는 1회에서 3회, 평균 연령은 15.4세였다.

2. 연구 도구

1) 교사 평정법

학생들의 공격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코이에와 다지(Coie, J. D., & Dodge, K.A., 1988)가 사용한 교사 평정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개 문항으로 5점 척도이다. 그러므로 점수들은 8~40점의 범위를 이루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행동의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교사평가의 6주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r)는 .83이었고, Cronbach α 는 .96 이었다.

2) 또래지명법

학생들이 같은 학급의 또래들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성 측정 검사의 하나인 또래지명법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공격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 3개,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 2개의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적합한 또래 학생 3명을 기록하게 하였다.

3) 상황조건

상황조건에 따른 의도지각, 통제가능성과 책임성 및 분노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세 명의 중학교 교사와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쳐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상황조건은 우호적 상황, 우연적 상황, 적대적 상황, 그리고 애매모호한 상황의 4개에 4개씩 총 16개로 하였다. 각 상황조건은 또래의 도발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호적 상황은 피도발자의 의도적 행동으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었으나 상대 또래를 도와주려는 긍정적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연적 상황은 도발자의 행동에 의도성이 없고 예기치 않게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적대적 상황은 의도적이고 악의가 드러나는 행동이 기술되어 있다. 애매모호한 상황은 도발자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모순되는 단서에 의해 부정적 결과가 야기된 행동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 앞서, 상황조건들의 내용이 피험자에게 이해되는지의 여부와 소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로 선별되지 않은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35-45분 정도 소요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의도지각을 묻는 질문이 어색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행동 예문이 지나치게 길며, 동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로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다시 수정하였다.

4) 측정 변인

① 의도지각 : 가설적 상황조건에서 도발자가 고의적으로 한 행동인지를 묻는 두 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의도지각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상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② 귀인(통제가능성과 책임성) : 도발자가 가설적 상황조건에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인지의 통제가능성을 묻는 문항 1개, 도발자에게 책임이나 잘못이 있는지의 책임성을 묻는 문항 1개에 의해 평가하였다. 통제가능성과 책임성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도발자가 상황의 의도를 통제할 수 있

고, 도발자에게 책임이나 잘못이 있다는 부정적 귀인경향을 나타낸다.

③ 정서적 반응 : 가설적 상황조건에 대한 열받음, 화남(분노) 및 고마움(혹은 행복감)의 정서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연구 절차

1) 피험자 선별

교사 평가에 의해 측정된 전체 학생의 공격 점수에 대한 평균과 중앙치(Median)를 구한 결과, 1학년의 평균과 중앙치는 각각 18.77과 18, 2학년의 평균과 중앙치는 각각 18.95, 19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평가에 의한 전체 학생의 공격행동 점수에 대한 평균과 또래지명 점수에 기초로 하여 집단 지위를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공격집단은 1)교사평가에 의한 공격점수가 19점 이상, 2)또래지명에서 사회적 선호 점수가 0보다 적으며, 3)공격행동에 지명된 점수가 친사회적 행동에 지명된 점수보다 2배 높은 피험자가 해당되었다. 비공격 집단은 1)교사 평가에 의한 공격 점수가 19점 미만, 2)또래지명에서 사회적 선호 점수가 0보다 크고, 3)친사회적 행동에 지명된 점수가 공격행동에 지명된 점수보다 2배 이상 높은 피험자가 해당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공격집단으로 분류된 피험자는 130명, 비공격집단은 128명이었다.

2) 실험방법

본 연구는 1차의 경우 1999년 6월 26일부터 7월 20일 까지, 2차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 까지, 그리고 3차는 2000년 2월 21일부터 3월 2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에 앞서 연구자가 석사과정 상담심리 전공의 연구보조자 3명에게 실험절차를 설명하고 연습을 시켰다. 각 연구보조자는 5-7명의 피험자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피험자의 집단 지위를 알지 못하였다. 실험은 각 학교의 상담실에서 아침 자습시간에 실시하였고, 비행청소년은 오전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상담실에서 실시하였고 담당교사가 참관하였다. 실험시간은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자료 분석

먼저 각 측정변인이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SPSS 9.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집단(3)×상황조

전(4)간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의도지각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의 상황에 대한 의도지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들 세 집단간 평균독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 : 의도지각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집단(A)	172.29	2	86.14	118.15
상황(B)	2570.47	3	856.82	2117.42
A×B	109.99	6	18.33	45.30
전 체	3470.64	1283		

* $P<.05$

표 1과 같이, 집단($F=118.15$, $P<.05$)과 상황조건($F=2117.42$, $P<.05$)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과 상황조건간 상호작용 효과는 $FA \times B=45.30$, $P<.05$ 로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단순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집단@우호적 상황($F=17.31$, $P<.05$), 집단@우연적 상황($F=75.37$, $P<.05$), 집단@애매모호한 상황($F=116.63$, $P<.05$) 그리고 집단@적대적 상황($F=55.31$,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조건의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공격적 집단($F=944.83$, $P<.05$), 집단@비공격적 집단($F=675.43$, $P<.05$) 그리고 집단@폭력비행집단($F=663.37$,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의도지각의 집단별 상황조건별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집단				
집단@우호	9.85	2	4.93	17.31
집단@우연	88.72	2	44.36	75.37
집단@에메모호	124.28	2	62.14	116.63
집단@적대	59.42	2	29.71	55.31
상황조건				
상황@공격	1146.99	3	382.33	944.83
상황@비공격	819.95	3	273.32	675.43
상황@비행	805.30	3	268.43	663.37

* $P < .05$

집단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우호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2.238$)과 비공격적 집단($M=1.995$) 간,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1.779$) 간,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 간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2.579$)와 폭력비행집단($M=3.737$) 간, 비공격적 집단($M=2.364$)과 폭력비행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격적 집단과 비공격적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메모호한 상황과 적대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4.785/5.836$)과 비공격적 집단($M=3.724/ 5.237$) 간,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5.252/6.366$) 간,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 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조건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은 우호적 상황($M=2.238/ 1.995/ 1.779$)을 제외한 우연적 상황($M=2.579/ 2.364/ 3.737$), 에메모호한 상황($M=4.785/ 3.724/ 5.252$) 그리고 적대적 상황($M=5.836/ 5.237/ 6.366$) 간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 가설 1은 수용되었다. 즉 폭력비행집단은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적대적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적대적 귀인경향이 높았다.

2. 귀인(통제가능성과 책임성)

1) 통제가능성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의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들 세 집단의 평균득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 통제가능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집단(A)	20.56	2	10.28	10.71
상황(B)	1030.68	3	343.56	679.45
집단(A)×상황(B)	55.88	6	9.31	18.42
전체	1894.72	1283		

* $P<.05$

표 3과 같이, 집단($F=10.71$, $P<.05$)과 상황조건($F=679.45$, $P<.05$)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과 상황조건간 상호작용 효과는 $FA \times B=45.30$, $P<.05$ 로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단순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집단@우호적 상황($F=18.07$, $P<.05$), 집단@우연적 상황($F=6.10$, $P<.05$), 집단@에매모호한 상황($F=29.04$, $P<.05$) 그리고 집단@적대적 상황($F=13.26$, $P<.05$)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우호적, 우연적, 적대적 상황 각각에서 공격적 집단($M=3.754/ 4.736/ 6.016$)과 비공격적 집단($M=3.732/ 4.542/ 5.875$) 간에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3.140/ 5.004/ 6.482$) 간,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매모호한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5.297$)과 비공격적 집단($M=4.849$) 간,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5.654$) 간,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통제가능성의 집단별 상황조건별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집단				
집단@우호	19.54	2	9.77	18.07
집단@우연	9.51	2	4.75	6.10
집단@애매모호	30.74	2	15.37	29.04
집단@적대	16.65	2	8.32	13.26
상황조건				
상황@공격	347.05	3	115.68	228.78
상황@비공격	296.72	3	98.91	195.60
상황@폭력비행	412.40	3	137.47	271.86

* P<.05

상황조건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은 우호적 상황(M=3.754/ 3.732/ 3.140), 우연적 상황(M=4.736/ 4.542/ 5.004), 애매모호한 상황(M=5.297/ 4.849/ 5.654) 및 적대적 상황(M=6.016/ 5.875/ 6.482)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 가설 2는 수용되었다. 즉 폭력비행집단은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네 개 상황조건에서 상황의 의도를 통제가능한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책임성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의 상황에 대한 책임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들 세 집단의 평균독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집단(F=35.43, P<.05)과 상황조건(F=956.08, P<.05)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과 상황조건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A×B=16.06, P<.05로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책임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집단(A)	72.19	2	36.09	35.43
상황(B)	1295.73	3	431.91	956.08
집단(A)×상황(B)	43.54	6	7.26	16.06
전체	2166.38	1283		

* $P<.05$

상호작용 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단순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집단@우호적 상황($F=5.92$, $P<.05$), 집단@우연적 상황($F=27.72$, $P<.05$), 집단@에매모호한 상황($F=33.88$, $P<.05$) 그리고 집단@적대적 상황($F=27.18$, $P<.05$)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 책임성의 집단별 상황조건별 단순 주효과 분석

변산원	SS	DF	MS	F
집단				
집단@우호	6.23	2	3.11	5.92
집단@우연	39.91	2	19.96	27.72
집단@에매모호	41.70	2	20.85	33.88
집단@적대	27.88	2	13.94	27.18
상황조건				
상황@공격	416.76	3	165.59	366.54
상황@비공격	414.88	3	138.29	306.13
상황@비행	442.45	3	147.48	326.47

* $P<.05$

집단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우호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3.402$)과 비공격적 집단($M=3.208$) 간,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3.037$) 간에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연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4.307)과 비공격적 집단(M=4.08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5.022) 간,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애매모호한 상황과 적대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5.179/ 6.059)과 비공격적 집단(M=4.746/ 5.687) 간,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5.710/ 6.471) 간,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 간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조건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은 우호적 상황(M=3.402/ 3.208/ 3.037), 우연적 상황(M=4.307/ 4.081/ 5.022), 애매모호한 상황(M=5.179/ 4.746/ 5.710) 및 적대적 상황(M=6.059/ 5.687/ 6.471) 각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 가설 3은 수용되었다. 즉 폭력비행집단은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네 개 상황조건에서 상황의 의도에 대해 상대에게 그 책임이나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 분 노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의 상황에 대한 분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들 세 집단의 평균특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 분노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집단(A)	90.72	2	45.36	108.78
상황(B)	2792.90	3	930.97	3860.68
A × B	46.44	6	7.74	32.09
전체	3292.71	1283		

* P<.05

표 7과 같이, 집단(F=108.78, P<.05)과 상황조건(F=3860.68, P<.05)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과 상황조건간 상호작용

용 효과는 $FA \times B = 32.79$, $P < .05$ 로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단순 주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집단@우호적 상황($F = 29.83$, $P < .05$), 집단@우연적 상황($F = 56.09$, $P < .05$), 집단@에메모호한 상황($F = 108.88$, $P < .05$) 그리고 집단@적대적 상황($F = 48.81$, $P < .05$)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우호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 = 2.984$)과 비공격적 집단($M = 2.502$) 간,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 = 2.434$)간에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연적 상황, 에메모호한 상황 및 적대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M = 5.171/ 6.275/ 6.703$)과 비공격적 집단($M = 4.795/ 5.502/ 6.368$) 간, 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M = 5.796/ 6.524/ 6.886$) 간 그리고 비공격적 집단과 폭력비행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분노의 집단별 상황조건별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집단				
집단@우호	19.87	2	9.93	29.83
집단@우연	44.33	2	22.17	56.09
집단@에메모호	59.30	2	29.65	108.88
집단@적대	13.65	2	6.82	48.81
상황조건				
상황@공격	1053.56	3	351.19	1456.35
상황@비공격	1037.26	3	345.75	1433.82
상황@비행	844.97	3	281.66	1168.02

* $P < .05$

상황조건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후검증 결과 표 제시 생략)를 설명해보면,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은 우호적($M = 2.984/ 2.502/ 2.434$), 우연적($M = 5.171/$

4.795/ 5.796), 애매모호(M=6.275/ 5.502/ 6.524) 그리고 적대적 상황(M=6.703/ 6.368/ 6.886)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 가설 4는 수용되었다. 즉 우연적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 및 적대적 상황에서 폭력비행집단은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분노를 유발하는 것을 보여준다.

V. 논의, 결론 및 제언

의도지각에 대한 연구결과는 폭력비행집단이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적대적 상황에서 상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적 상황에서 폭력비행집단이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우호적 상황의 의도를 우호적으로 지각하였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폭력비행집단은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상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귀인편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지와 그의 동료들이 사회정보처리 이론에서 공격적 행동은 적대적 귀인편향에 의해 유발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rick & Dodge, 1994). 슬라비와 구에라(Slaby, R. G., & Guerra, N., 1988)의 연구에서 폭력비행집단이 일반 청소년 공격집단보다 적대적 귀인편향을 나타내고, 크릭과 다지(1996)의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은 폭력 등 반응적 공격과 비사회화된 공격행동장애와 관계가 있으나 비폭력 범죄와 사회화된 공격행동장애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귀인(통제가능성과 책임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가능성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호적 상황, 우연적 상황 및 적대적 상황에서 공격·비공격적 집단은 폭력비행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폭력비행집단은 공격적 집단과 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통제가능성이 높았다. 이 결과는 폭력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황의 의도를 통제가능한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우호적 상황에서 공격적 집단이 폭력비행집단에 비해 책임성이 높았으나, 우연적 상황에서는 폭력비행집단이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폭력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황의 의도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이 상대에게 있는 것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통제가능성과 책임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구에라 외(1990)의 연구에서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공격과 사회적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 요소로 귀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폰더카를로와 헬러(Fondacaro, M. R., & Heller, K., 1990)의 연구에서 공격·비공격적 범법청소년이 일반청소년 보다 에메모호한 대인간 문제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귀인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공격적 아동의 귀인양식은 부정적 상황에 대해 외적 귀인 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퀴글 외(Quiggle, N. 외, 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분노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보면 우호적 상황에서 폭력비행집단이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분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연적 상황, 에메모호한 상황 및 적대적 상황에서 폭력비행집단이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우연적 상황, 에메모호한 상황 및 적대적 상황에서 폭력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분노를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상대분노 수준 혹은 특성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공격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고영인, 1994), 청소년의 분노 경험이 공격행동을 야기하고(이규미, 1999), 공격성은 분노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Fondacaro & Heller, 1990), 일반적인 공격집단의 분노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Maiuro 외, 1988)와도 일치한다. 화이트셀과 하터(1996)의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들이 또래의 도발에 처음 경험하는 정서가 분노이고, 친한 사이가 아닐 때 분노의 경험이 공격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또래지위와 친밀성 정도 및 상황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분노의 경험 정도와 공격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의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지각, 책임성과 통제성의 귀인 및 정서적 반응(분노)은 공격행동의 유발에 관계되는 변인이다. 둘째, 이들 변인들은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및 폭력비행집단과 상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폭력비행집단은 공격·비공격적 집단에 비해 적대적 상황과 에메모호한 상황에서 이들 상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비행집단은 이들 상황에서 분노를 더 많이 유발하고, 이들 상황의 의도를 통제가능하고 상대에게 그 책임이나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론과 더불어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공격·비공격 집단의 일반청소년과 폭력비행집단의 비행청소년 간의 연령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일반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폭력비행집단의 평균 연령은 15.8세로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발달단계에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다음, 공격행동의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인지적·정서적 요인 뿐 만 아니라 신체적·생리적 특성, 성격, 부모의 양육태도 및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들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끝으로, 종속변인 중 의도지각, 정서적 반응 및 통제가능성과 책임성의 귀인을 측정하는 문항 수가 적고 강제 선택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들 변인들을 실제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하면 피험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절차와 결과에 기초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을 교사평가와 또래지명에 의해 공격행동을 평가하여 공격·비공격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또래관계의 맥락에서 우정과 친밀성 정도에 따라 관계적 공격(relational aggression)과 외현적 공격(overt aggression)으로 나누어진다(Grotperter & Crick, 1996).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은 관계적 공격에, 학교 폭력은 외현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공격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과 외현적 공격으로 분류하여 이에 관계되는 변인들은 어떠한 것들이며, 이들 변인들은 상황조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폭력비행집단은 비행 청소년 중 폭력비행을 범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목적추구를 위한 도구적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폭력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공격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나 사회정보처리 모형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유능성, 친사회적 행동 및 이타행동의 분야로 연구를 확대할 때,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공격행동을 다루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1992). 공격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곽금주, 김하연, 윤진(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정보처리 과정간의 관계(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한국심리학회, pp. 145-156.
-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 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현미(1993). 공격적인 아동과 우울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지영(1992).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규미(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 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승렬(1996). 아동 공격성에 대한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분석. *The Korea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3(10), pp. 76-91.
- 양계민, 정현희(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한국심리학회, pp. 91-104.
- 장화경(1990).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른 갈등 결과 예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종진(1992). 학교학습과 동기: 귀인론적 접근. 초등교육연구논총, 4, 대구교육대학, pp. 35-51.
- 청소년 백서(1999). 문화체육부.
- Asher, R., & Coie, J. D.(1990).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tancourt, H., & Blair, L.(1992). A cognition(attribution)-emotion model of violence in conflict sit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pp. 343-350.
- Coie, J. D., & Dodge, K. A.(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pp. 815-829.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pp. 74-101.
- Crick, N. R., & Dodge, K. A.(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pp. 993-1002.
- Crick, N. R., & Ladd, F. W.(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pp. 244-254
- Dodge, K. A.(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pp. 162-170.
- Dodge, K. A.(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Vol. 18, pp.77-12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Associates.
- Dodge, K. A.(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Psychology*, 44, pp. 559-584.
- Dodge, K. A., & Coie, J. D.(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pp. 1146-1158.
- Dodge, K. A., & Crick, N. R.(1990).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6, 8-22.
- Dodge, K. A., & Frame, C. M.(1982). Social cognitive bia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pp. 620-635.
- Dodge, K. A., Lochman, J. E., Harnish, J. D., & Bates, J. E.(1997).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and psychologically impaired chronically assaultive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0), pp. 37-51.
- Dodge, K. A., Price, J. M., Bachorowski, J., & Newman, J. P.(1990).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in severely aggressiv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4), pp. 385-392.
- Fondacaro, M. R., & Heller, K.(1990). Attributional style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1), pp. 75-89.
- Geen, R. G., & Donnerstein, E.(1998). *Human aggression*. Academic Press.
- Graham, S., & Hudley, C.(1994). Attributions of aggression and nonaggressive African-American male early adolescents: A study of construct access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pp. 365-373.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pp. 731-740.
- Grotspe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pp. 2328-2338.
- Guerra, N. G., Huesmann, L. R., & Zelli, A.(1990). Attributions for social failure and aggression in incarcerated delinquent yout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4), pp. 347-355.
- Leadbeater, B. J., Hellner, I., Allen, J. P., & Aber, J. L.(1989). Assessment of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n youth engaged in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pp. 465-472.
- Lochman, J. E., & Dodge, K. A.(1994). Social-cognitive process of severely violent, moderately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pp. 366-374.
- Loeber, R., & Hay, D.(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Psychology*, 48, pp. 371-41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53(2), pp. 242-259.
- Maiuro, Roland D., Cahn, Timothy S., Vitaliano, Peter P., Wanger, Barbara C., & Zegree, Joan B.(1988). Anger, hostility, and depression in domestically violent versus generally assaultive men and nonviolent control subj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 pp. 17-23.
- Quiggle, N.,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1992).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pp. 1305-1320.
- Sancilio, F. M., Plumert, J. M., & Hartup, W.(1989). Friendship and aggressiveness as determinants of conflict outcome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pp. 812-819.
- Scherer, K.(1997). The role of culture in emotion-antecedent 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pp. 902-922.
- Slaby, R. G., & Guerra, N. G.(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1.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pp. 269-277.
- Waldman, I. D.(1996). Aggressive boys' hostile perceptual and response biases: The role of attention and impulsivity. *Child Development*, 67, pp. 1015-1033.
- Weiner, B.(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related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29, pp. 548-573.
- Weiner, B.(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 York: Spring-Verlag.

- Weiner, B.(1991). Metaphors in motivation and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46(9), pp. 921-930.
- Weiner, B.(1993). On sin versus sickness: A theory of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social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48, pp. 957-965.
- Weiner, B., Graham, S., & Chandler, C.(1982). Pity, anger, and guilt: An attribution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pp. 226-232.
- Willis, L. M., & Foster, S. L.(1990). Differences in children's peer sociometric and attribution ratings due to context and type of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2), pp. 199-215.
- Whitesell, N. R., & Harter, S.(1996).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emotion: Anger with close friends and classmates. *Child Development*, 67, pp. 1345-1359.

ABSTRACT

A Study of Perceived Intentionality, Attribution and Anger by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and Situational Conditions

Lee, Young-A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 among perceived intentionality, attribution(controllability and responsibility) and anger in aggressive, nonaggressive and violent male adolescents by situational conditions. Aggressive(n=128) and nonaggressive(n=130) adolescents were selected from 851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ir teacher ratings and peer nominations. The violent group(n=68) was composed of adolescents who had committed violent crimes and assaults. For data collection, 16 situational conditions(e.i., benign, accidental, ambiguous, and hostile situations) were presented to each adolescent in a small group format. They were then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designed to assess perceived intentionality, attribution, anger and aggressive behavior.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to examine difference among the variables of perceived intentionality, attribution, and anger.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related perceived intentionality, attribution and anger to aggressive behavior.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found between aggressive/nonaggressive adolescents and violent or delinquent adolescent in terms of perceived intentionality, attribution and anger as determinations of aggressive behavior among four situational conditions. Specifically, violent adolescents endorse more hostile attribution than would their aggressive/nonaggressive adolescents in hostile situation and ambiguous situation. And violent adolescents triggered more anger, endorsed more controllable of the intention of situation, more responsible of others in hostile situation and ambiguous situation.

* Taegu Youth Counseling Center